

# 미용전공대학생의 가치관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최영재<sup>\*</sup>, 이인희<sup>2</sup>

<sup>1</sup>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sup>2</sup>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 A study on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 based on Sense of Values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Young-Jae Choi<sup>1\*</sup> and In-Hee Lee<sup>2</sup>

<sup>1</sup>Dept. of Beauty Arts, Graduate School, Seogyong University

<sup>2</sup>Dept. of Beauty Arts, Seogy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선택유형을 파악하고, 관계를 분석하여 미용전공 대학생의 진로 결정 및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미용관련 학과 474명이다. 가치관이 진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세부 전공에 따라서도 연구대상자의 가치관과 진로 의사결정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미용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가치관을 유형별로 나누어 이들의 진로 의사결정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수들이 미용전공대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여 전공과 관련한 직업 특성을 설명하고, 미용전공학생에게 직접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직업을 모색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data for developing a guide that can help cosmetology majors with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guidance by identifying their values and career paths and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This study was conducted on 474 college students with cosmetology-related majors nationwide. First, their values had an effect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ir values and career decision-making depending on their concentrations.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values of cosmetology majors were divided by type and their correlation with career decision-making was analyzed. The results will be helpful for cosmetology students to explore and decide upon their careers if professors comprehend students' individual tendencies,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cosmetology-related jobs, and provide them the chances to have practical work experience in the fiel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Key Words** : Cosmetology majors, Career decision-making, Sense of value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직업에 대한 분류가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화,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으며, 이 현상이 대학생들의 전공 및 진로선택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정하게 되며 더불어 흥미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1].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은 대학 진학 시 개인의 가치관이나 적성, 성격, 흥미는 충분히 고려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나 성적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한 것이 현재까지의 실정이다. 실제로 2011년 하반기 직업현황을 추적한 '대

\*Corresponding Author : Young-Jae Choi(Seogyong Univ.)

Tel: +82-10-9382-8464 email: sensation01@naver.com

Received April 14, 2014

Revised (1st May 2, 2014, 2nd May 7, 2014)

Accepted May 8, 2014

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한 경우가 34.8%로 3분의 1을 넘었다. 이는 "중·고교 진로교육에서 대학 전공 및 관련 직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이에 기초한 대학 전공 선택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한다"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지적했다[2]. 또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인해 전공의 선택 과정에서 적성보다는 취업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고 취업준비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대의 대학생은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가질 때, 자신의 가치관과 자아실현에 부합하면서도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미용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타전공보다는 대부분 자신의 적성과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3-5]. 그러나 적성과 관심분야만으로는 진로선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졸업 후, 직업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전공 분야 내에서 직업의 특성을 설명한다면 학생들 스스로 더욱 더 합리적인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미용전공 대학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함과 동시에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대학생의 진로결정 요인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파악하여 관계를 분석하고, 전공별로 비교함으로써 미용전공 대학생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해 미용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가치관

가치란 개인의 내적욕구(needs)가 외적인 압력(presses)에 의한 조정을 거쳐 의식의 영역에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6], 잠재된 욕구가 사회의 요구나 목적에 부합되도록 변형된 후 의식 속에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관(Sense of value)의 의미를 여러 가지 문

제에 관하여 행동 방향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혹은 추구할만한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으로서, 가치관은 개인의 가지는 속성일 수도 있고 또는 한 집단이 가지는 속성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7].

정희영[8]은 가치관을 물질주의적 가치관, 자아존중적 가치관, 관계지향적 가치관, 타인의식적 가치관, 실리주의적 가치관으로 구분하였으며 대학생들의 가치관,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를 연구한 결과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공과 다르거나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직장에서의 근무로 인한 이직 또한 계속 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또한 사회 조직에서 신입사원을 채용 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사원을 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 역시 어떤 직장이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한 정보를 구하며 본인의 특성이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가장 이상적인 직장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9].

이처럼 가치관의 개념은 학문영역이나 그 사용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각자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찾고 이해를 하며, 개개인의 가치관을 찾고 정립하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고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 2.2 진로의사결정

진로의사결정이란 어떤 문제 상황이나 장면에 처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미래를 예측하여 자신의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문제의 대안을 선택, 결정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10]. 또한 이현림[11]은 진로의사결정을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정한 근거에 의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고 실험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라 하였다.

Krumboltz[12]는 합리적, 충동적, 직관적, 의존적, 운명론적 유형의 5가지 유형으로 의사결정을 나누었는데, 의사결정 순간의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 유형 전략이 다양하게 활용된다고 주장하였다. Harren[13]은 Dinklage[14]의 8가지 의사결정 유형을, 합리적 전략과

정의적 전략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자신의 결정에 얼마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재분류하였으며, 합리적 유형을 가장 효과적이라 보았고, 세 가지 유형들은 상호 독립적이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단독적인 유형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다.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가 지는 유형이다.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타인이나 외부로 돌리며 결정을 미루려는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충족감이나 개인적인 만족감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은 상상이나 환상, 감정을 사용하고 현재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서적 자각을 사용한다.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지만 정보탐색이나 논리적인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고, 의사결정 시 자신이나 상황에 대하여 감성적으로 평가하는 특징이 있다.

정진선[15]의 연구결과에서는 예체능계열이 직관적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존적 유형에서는 이학 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존적 유형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본인의 적성, 능력과 일치된 진로를 스스로 찾기 어려워 타인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는 의미이다. 한예정·이종호[16]의 연구에서 가치관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관계지향 가치관을 제외한 물질주의 가치관, 자아존중 가치관, 실용주의 가치관 3가지 요인 모두 진로결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민·조희숙[17]의 연구에서는 미용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요인은 상호간 매우 영향력이 높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고 다양한 척도로 측정되고 있으나, 대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로를 발견하고 준비해 나가기 위한 진로의식성숙은 매우 복잡하고 힘든 일이므로 적절한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능력을 증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8]. 그리고 미용전공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소비문화 등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가치관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부분은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앞으로 미용서비스업에서 전문적인 자질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게 될 미용전공 대학생들에게

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가치관과 소신 있는 진로결정이 요구된다[19].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3년 10월 29일 부터 11월 28일까지 미용 관련학과가 있는 8개 대학을 편의 선정하여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85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미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38부를 제외한 44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 3.2 측정도구

##### 3.2.1 가치관

Herche[20]가 개발하고 신수래[21]가 사용한 MI-LOV(Multi-Item of Values)의 일부와 김현[22]의 가치척도를 사용한 정희영[8]의 연구문항을 연구자의 목적에 적합하게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였다. 정희영의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6 \sim .81$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7 \sim .930$ 으로 나타났다.

##### 3.2.2 진로의사결정유형

Harren[23]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유형 검사지(ACDM: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를 고향재[24]가 번안한 검사지로 김현정[25], 이루라[1]의 설문지를 토대로 연구자의 목적에 적합하게 일부 수정·보완하여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하위척도에 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였다. 김현정의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8 \sim .787$ 이고 이루라의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1 \sim .857$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9 \sim .954$ 로 나타났다.

### 3.3 자료처리 및 분석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데이터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클리닝 과정(data cleaning)을 거쳐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가치관 유형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간의 영향력 분석을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미용 세부전공에 따라서 가치관과 진로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여자가 376명(84.1%), 남자가 71명(15.9%)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은 1학년이 151명(33.8%), 2학년이 116명(26.0%), 3학년이 108명(24.2%), 4학년이 72명(16.1%)로 나타났으며, 현재 세부전공은 피부미용이 188명(42.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헤어가 124명(27.7%), 메이크업이 117명(26.2%), 네일아트가 18명(4.0%)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관심과 적성이 있어서’가 341명(76.3%), ‘성적에 맞추어서’가 79명(17.7%), ‘졸업 후 빠른 취업을 위해’가 27명(6.0%)로 나타나 학생들이 전공 선택 시,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objects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71	15.9
	Female	376	84.1
Grade	1st grade	151	33.8
	2nd grade	116	26.0
	3rd grade	108	24.2
	4th grade	72	16.1
Present(or future) specialty	Hair	124	27.7
	Skin care	188	42.1
	Makeup	117	26.2
	Nail art	18	4.0
The reason to choose beauty treatment as your major	Interest and aptitude	341	76.3
	Grade	79	17.7
	Employment	27	6.0
Aptitude test when you enter a college	Yes	216	48.3
	No	231	51.7
The area that you want to get a job after graduation	Hair designer	70	15.7
	Esthetician	161	36.0
	Makeup artist	108	24.2
	Nail artist	9	2.0
	Instructor or researcher	99	22.1
Satisfaction with your beauty major	Not at all	18	4.0
	Not satisfied	36	8.1
	So-so	90	20.1
	A little bit	205	45.9
	Very much	98	21.9
Total		447	100.0

학 시 적성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가 231명(51.7%), 있다가 216명(48.3%)로 아직까지 적성검사를 하지 않는 학교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졸업 후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피부관리사가 161명(36.0%), 메이크업아티스트가 108명(24.2%), 교육 및 연구직이 99명(22.1%), 헤어디자이너가 70명(15.7%), 네일아티스트가 9명(2.0%)순으로 희망하였으며, 미용전공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금 만족한다’가 205명(45.9%), ‘아주 만족한다’가 98명(21.9%), ‘보통이다’가 90명(20.1%), ‘만족하지 않는다’가 36명(8.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18명(4.0%)로 나타났다. 정희영[9]의 연구에 의하면 미용전공에 불만족하는 이유가 전공과는 관련 없는 과목이 많고 전공 관련 교과목만도 너무 광범위하여 심화학습이 어렵고 전공과 거리가 먼 과목이 많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미용 실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목은 본 논문의 연구대상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 4.2 가치관과 진로의사결정의 상관관계

가치관과 진로의사결정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합리적 의사결정유형 및 의존적 의사결정유형 및 직관적 의사결정유형과 가치관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산출되었으나 그 상관계수는 낮았다.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가진 학생들은 물질지향, 실용지향, 자아성취지향, 사회관계지향, 타인의식지향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고 특히, 물질지향 가치관을 가진 학생일수록 합리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직관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경우에는, 가치관의 하위척도 중에서 감성지향, 자아성취지향, 타인의식지향, 실용지향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을 보였고, 즉 직관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가진 학생들은 스스로의 감성 및 느낌에 의해 선택하여 타인의 의견에 의해 결정내리는 경향도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존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은 감성지향적인 가치관과 정(+)의 상관관계를 물질지향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의존적인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가진 학생들은 물질적보다 감성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 가치관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치관 요인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실용지향, 사회관계지향, 타인의식지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Table 3과 같이 분석되었다. 이는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의 집단은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통하여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관계지향( $\beta=.405$ )은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28%로 나타났다.

가치관 요인이 의존적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독립변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타인의식지향( $\beta=3.79$ )은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의존적 진로의사결정 집단은 자신의 소신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감정 및 주변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치관 요인이 직관적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용지향, 자아성취지향 및 사회관계지향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감성지향( $\beta=.284$ )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14.83%로 나타났다. 이는 감성지향 가치관을 가진 집단의 학생들은 진로의사결정시 자신에게 득이 되는 진로나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원하는 진로를 찾는 성향보다도 자신의 감정에 의해 결정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lues and career decision

Classification	Material oriented	Practical oriented	Sensibility oriented	Self-accomplishment oriented	Social relationship oriented	Consciousness of others oriented
Reasonable	.453**	.170**	.042	.232**	.223**	.350**
Intuitive	.052	.097*	.223**	.299**	-.071	.314**
Dependent	-.108*	-.077	.299**	-.153**	-.094*	-.036

\*p<.05, \*\*p<.0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values and career decis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R <sup>2</sup>	B	β	SD	t	F value
(constant)			.200		.430	.465	
Reasonable	Material oriented	.282	.083	.088	.045	1.829	28.85
	Practical oriented		.098	.098	.042	2.307***	
	Sensibility oriented		-.072	-.050	.060	-1.202	
	Self-accomplishment oriented		-.089	-.073	.061	-1.461	
	Social relationship oriented		.536	.405	.058	9.258***	
	Consciousness of others oriented		.329	.236	.061	5.430***	
(constant)			2.243		.322	6.955***	
intuitive	Material oriented	.288	-.113	-.159	.034	-3.305**	29.59
	Practical oriented		-.155	-.208	.032	-4.903***	
	Sensibility oriented		.152	.141	.045	3.392**	
	Self-accomplishment oriented		.300	.328	.045	6.608***	
	Social relationship oriented		-.167	-.167	.043	-3.842***	
	Consciousness of others oriented		.398	.379	.045	8.757***	
(constant)			4.272		.405	10.542***	
Dependent	Material oriented	.062	-.024	-.031	.043	-.556	14.83
	Practical oriented		-.103	-.125	.040	-2.578**	
	Sensibility oriented		.100	.284	.056	4.769***	
	Self-accomplishment oriented		-.193	-.193	.057	-3.383***	
	Social relationship oriented		-.176	-.162	.055	-3.232***	
	Consciousness of others oriented		.002	.002	.057	.043	

\*\*p<.01, \*\*\*p<.001

#### 4.4 전공에 따른 가치관 및 진로의사결정의 차이

##### 4.4.1 전공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전공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가치관은 물질지향과 타인의식지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를 제외한 실용지향, 감성지향, 자아성취지향, 사회관계지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헤어 전공 학생은 감성지향과 실용지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이크업을 전공 학생들은 자아성취지향과 사회지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일아트전공 학생의 경우 자아성취지향과 사회지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미용전공 학생의 경우 사회지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일아트전공 학생의 경우 자기 전공에 관하여 자부심이 강한 측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고 피부미용전공 학생의

경우 전공의 특성상 고객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학생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전공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함과 동시에 전공영역에 따라 구분하여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 4.4.2 전공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의 차이

전공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진로의사결정은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헤어 전공하는 학생들은 의존적 진로의사결정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메이크업과 네일아트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직관적 진로의사결정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Table 4] One way variance analysis of career decision according to the major

Value	Major	Hair		Skin care		Make up		Nail Art		F
		M	SD	M	SD	M	SD	M	SD	
Material oriented		3.59b	.76	3.57b	.83	3.80a	.72	4.00a	.17	3.77
Practical oriented		3.42a	.67	3.25b	.69	2.87b	.78	2.80c	.20	14.83***
Sensibility oriented		4.05a	.25	4.12b	.55	4.49b	.48	3.70c	.51	27.23***
Self-accomplishment oriented		3.98a	.53	3.57b	.57	3.90a	.64	3.80a	.20	15.63***
Social relationship oriented		3.55b	.71	3.92a	.50	4.03a	.24	4.00a	.41	19.45***
Consciousness of others oriented		3.49a	.53	3.51a	.42	3.36a	.63	3.50a	.51	2.11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the level of p≤.05, significance validation a>b>c

[Table 5] One way variance analysis of career decision according to the major

Career decision	Major	Hair		Skin care		Make up		Nail Art		F
		M	SD	M	SD	M	SD	M	SD	
Reasonable		3.16c	.720	3.42b	.76	3.47b	.68	3.83a	.00	7.20***
Intuitive		3.88b	.69	3.66c	.37	4.08a	.55	3.91a	.08	16.24***
Dependent		3.04a	.46	2.78b	.62	2.89b	.67	2.50c	.34	7.34***

\*\*p<.01, \*\*\*p<.001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the level of p≤.05, significance validation a>b>c

### 5. 결론

본 연구는 미용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진로의사결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미용학의 세부 전공인 헤어,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를 전공하는 학생 집단 에 따라 가치관과 진로의사결정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약 76%가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로 인하여 미용을 전공으로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약 18%가 성적에 맞추어서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여 박미나의 연구에서 미용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로 자신의 적성과 소질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06명 중 176으로 약 35% 가장 많이 차지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26]. 전체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 [2]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약 35%가 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미용전공대학생들은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관심분야를 고려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게 개인에게 맞는 전공과 관련된 직업적 인식과 진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진로를 결정

하는 것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용전공대학생의 가치관 요인은 물질지향, 실용지향, 감성지향, 자아성취지향, 사회관계지향, 타인의식지향으로 총 6가지로 나타났으며 진로의사결정 요인은 합리적, 의존적, 직관적으로 총 3가지로 분석되었다. 가치관과 진로의사결정의 측정변수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들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물질을 지향하는 가치관과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은 정(+)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분석되었고, 사회관계(β=.405)는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적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타인의식지향(β =3.79)은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치관 요인이 직관적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용지향, 자아성취지향 및 사회관계 지향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감성지향(β=.284)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진로의사결정 요인 중 합리적 집단은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통하여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의존적 집단은 자신의 소신대로 결정

하지 못하고 감정 및 주변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직관적 집단의 학생들은 진로의사결정시 자신에게 득이 되는 진로나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원하는 진로를 찾는 성향 보다 자신의 감정에 의해 결정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용전공대학생의 전공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물질지향과 타인의식지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를 제외한 실용지향, 감성지향, 자아성취지향, 사회관계지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헤어 전공하는 학생은 감성지향과 실용지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이크업을 전공하는 학생은 자아성취지향과 사회지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용사는 자율성이 높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창의성이 높다고 보고한 임언·정윤경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헤어를 전공하는 학생과 메이크업을 전공하는 학생의 가치관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27]. 또한 네일아트전공 학생의 경우 자아성취지향과 사회지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미용전공 학생의 경우 사회지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일아트전공 학생의 경우 자기 전공에 관하여 자부심이 강한 측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고 피부미용전공 학생의 경우 전공의 특성상 고객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헤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의존적 진로의사결정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메이크업과 네일아트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직관적 진로의사결정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한편, 최은주[28]의 연구에서는 헤어,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의 미용 세부 전공에 따라서 진로의사결정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미용전공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추후연구에는 대학생의 진로적성 유형과 개인의사결정 유형 및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이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세부적이고 통합적인 진로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이 성별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

생의 비율보다 많았으며, 각 전공의 비율도 고르지 못한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며 학년과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추후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미용전공대학생의 가치관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및 전공에 따른 가치관과 진로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밝혀진 만큼, 추후연구에서는 입학이후부터 졸업까지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에 따른 진로의식성숙을 함양할 수 있는 취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미용계 종사자들의 가치관을 조사·비교하여 대학생들의 사회진출 후, 지속적인 만족도가 이루어져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후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

- [1] R. R.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interest congruence and career choice pattern of undergraduate danc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1.
- [2]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Basic Analysis Report- No. 7th analysis", KRIVET, 2011.
- [3] E. H. Kim, "Study of Skin and Hair Care Department Graduates' Satisfaction with Their Jobs and Processes of Beauty Care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kyeong University, 2011.
- [4] M. N. Park, "Effect of the self-concept of beauty design college majors to creativity and career awareness", Unpublished masters'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0.
- [5] E. J. Choi,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2011.
- [6] Murray, H. A., Explorations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8.
- [7] B. M. Jeong. "Sense of Value & Education" Baeyoungsa, Seoul, 1972.
- [8] H. Y. Jeong,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2010.
- [9] C. B. Woo, "An Effect of Agreement of Values between Person and Organization on Hotel Employees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pp. 137-152, 2010.
- [10] T. O. Lim, "The Relationship Among Self-concept,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ty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2000.
- [11] H. R. Lee, "Understanding of Career consultation", Youngnam University, 2000.
- [12] Krumboltz, J.D. & Hanel, D.A., "Guide to career decision-making skill",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1977.
- [13] Harren, V. A.,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4, 119-133, 1979.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79\)90065-4](http://dx.doi.org/10.1016/0001-8791(79)90065-4)
- [14] Dinklage, L. B., "Decision strategies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968.
- [15] J. S. Ju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2011.
- [16] Y. J. Han, J. H. Lee,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Values of College Students - Majoring in Food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Vol. 19, No. 2, pp. 76-92, 2013.
- [17] K. M Ahn, H. S. Cho,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and Career-Deciding Factor for Beautician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7, pp. 2951-2956,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7.2951>
- [18] K. B. Hwan, B. S. Kim, C. Y. Jeong, " Career consultation in School", Hakjisa, 2000.
- [19] H. Y. Jeong, O. L. Park, "Difference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he Sense of Value Group Based on Cluster Analysis", *Journal Korea Society Cosmetology*. Vol. 15, No.2, pp.630-638, 2009.
- [20] Herche, J., "Measuring Social Value: A Multi-Item Adaptation to the List of Values(MILOV)", Cambridge, MA: Marketing Science Institute. Working Report pp.94-101, 1994.
- [21] S. R. Shi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al Value, Clothing Image and Clothing Shopping Orientation", Unpublished Doctorate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7.
- [22] H. Kim, "A Study on the Values and Clothing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2003.
- [23] Harren, V. A.,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 :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4
- [24] H. J. Koh,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an college students's decision making style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3.
- [25] H. J. Kim, "A study on analysis of the career Choosing Types and the Career Decision Factors of Dance Major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07.
- [26] M. N. Park, "Effect of the self-concept of beauty design college majors to creativity and career awareness", Unpublished masters'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0.
- [27] U. I., Y. K. Jeong, "Development of a vocational Aptitude Inventory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II)", KRIVET, 2000.
- [28] E. J. Choi,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2011.

최 영 재(Young-jae Choi)

[정회원]



- 2008년 2월 :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미용예술학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외래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대학진로, 교육, 피부, 사회과학

이 인 희(In-Hee Lee)

[정회원]



- 2010년 2월 :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미용예술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과학, 교육, 피부, 세포재생